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장민희

2017년 8월

대학생의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정 숙

장 민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장민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印)

위 원 (印)

위 원 (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6월

목 차

국문초록	vi
I. 서 론	01
II. 이론적 배경	04
1. 신용 및 신용교육	04
1) 신용에 대한 정의	04
2) 신용교육의 의의와 내용	05
2. 신용태도	07
3.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09
1) 일반적 특성	09
2) 교육경험 관련요인	11
3) 교육인식 관련요인	12
4) 신용태도 관련요인	13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6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6
2. 측정도구	17
1) 일반적 특성	17
2) 신용 사용경험	17
3) 신용교육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	18
4) 신용태도	19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1
4. 분석 방법	21

IV. 분석결과 및 해석	22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
2. 대학생의 신용 사용경험 및 교육 실태	24
1) 신용 사용경험	24
2) 신용교육 경험 및 인식	26
3. 대학생의 신용태도	29
1) 신용태도 실태	29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태도의 차이	31
3) 신용태도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34
4. 대학생의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36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의 차이	36
2)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38
5. 대학생의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40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의 차이	40
2)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42
6.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들의 인과적 효과	44
V. 결론 및 제언	47
참고문헌	51
Abstract	
부록	58
1. 대학생의 신용교육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 실태	59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지식	5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카드 유무	60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 사용경험	61
5. 회귀분석에 사용된 요인들의 상관관계	62
6. 설문지	63

표 목차

<표 1>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육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	15
<표 2>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척도	18
<표 3> 신용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20
<표 4>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23
<표 5> 대학생의 신용 사용경험 실태	25
<표 6> 대학생의 신용교육 경험 및 인식 실태	30
<표 7> 대학생의 신용태도 실태	23
<표 8>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태도의 차이	33
<표 9> 신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35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의 차이	37
<표 11>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39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의 차이	41
<표 13>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43
<표 14>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적 영향	46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16
<그림 2>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관련 요인들의 경로모형	44

<국문초록>

대학생의 신용 사용경험이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장 민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정 숙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지식과 신용 사용경험 등에 따른 신용태도와 신용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들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신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 개발 등 신용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조사는 2017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941명에게 배부하여 82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기재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109부를 제외하고 71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요인분석, 카이검증, 빈도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분산팽창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86.4%가 신용교육 경험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50% 이상은 합리적 소비와 신용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교육받은 대학생 비율은 교육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35% 미만이었다.

둘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26.0%이었으며 그 중에서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16.3%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36.0%는 대학생생활 동안 채무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현재 채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25.3%였다. 채무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에서 채무연체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25.8%였다.

셋째,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신용 사용에 대한 조건적 허용태도가 5점 만점에 3.39점이었고 신용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5점 만점에 3.44점이었으며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4.27점이었다.

넷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거나, 현재 채무가 있는 대학생이거나, 채무연체경험이 없거나, 신용교육 경험이 있거나,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를 가질수록,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이 높을수록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신용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 신용 사용 후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은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대해 매개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들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올바른 신용태도 형성을 위한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대학생소비자, 신용경험, 신용지식, 신용태도,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I. 서 론

신용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현금이 없어도 당장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편리함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신용을 사용하여 더 많은 물질적·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현대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표현하고 있다(한국은행, 2013). 소비자가 신용을 사용하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용을 활용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신용을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비상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고 인터넷 구매나 인터넷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최현자, 2016).

소비자가 신용을 활용하면서 얻는 이점도 많이 있지만 신용등급과 채무를 비롯하여 신용에 대한 제반적인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도 존재한다. 또한 신용 사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신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10월 14일자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2016년 8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로 인한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채무자 중에 채무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학생의 수가 456명이나 된다는 실태가 제시되었다(이성택, 2016). 큰 금액이 아니라도 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빌린 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해야 하며 이로써 더 심각한 채무를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채무는 가계의 채무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의 채무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채무와 신용을 관리하는 것은 신용사회에서 필요하고 불가피한 일이 되었지만 이것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가계부채는 작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제주지역의 부채가 더 많았다. 2017년 3월 29일자 한라일보 기사에서는 올해 1월 말 기준 제주도내 가구당 부채 규모는 5149만 원으로 전국평균보다 499만 원이

더 많았으며 가계대출 잔액은 11조 5716억 원으로 작년보다 388.8%가 늘었음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30.1%로 전국평균인 111.3%보다 더 높고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큰 정도가 심각한 상황임을 밝힌 바 있다(문미숙, 2017).

신용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점도 있는 반면에 신용관리의 부재나 개인의 과소비와 충동구매 등의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들의 의식이나 시스템이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채정숙, 2008)

개인의 신용이 좋아지면 소비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생산활동의 증가로 금융기관과 기업이 안정적인 이익을 얻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다시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는 것이 신용 선순환 사회이다. 신용 선순환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이 신용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함으로써 철저한 신용관리가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교육에 대한 사회적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 차세대들에게 금융과 신용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돈과 신용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체계적인 신용교육을 강화하는 것에는 비용이 들지만 신용대란이 터진 후 수습하는데 쓰일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다. 따라서 제 2의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신용대란을 예방하고 우리나라를 선진적인 신용사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신용교육에 힘써야 한다(이동주, 2003).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연체미경험자의 신용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신용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그 연구 결과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연체미경험자보다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 점수가 낮은 편이었음을 밝혔다(성영애, 2008). 연구자는 이러한 비교 연구 결과로 건강한 신용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이 신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고 신용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신용교육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지며 공교육을 받는 시기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교육의 접근성이 더 높아

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신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서 스스로의 선택 하에 자신의 신용을 사용하게 되는 대학생시기에는 신용관련 경험에 직접 부딪치는 경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교육이 필요하다.

Tyler는 교육과정과 수업 계획을 위해 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로 교육목표 선정, 학습경험 선정, 학습경험 조직, 교육평가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Tyler의 교수설계이론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수업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교육목표의 선정이다. Tyler는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교육목적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학생들과 사회의 요구 조사 결과를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과 사회의 요구 조사 결과는 교육목적 결정에 필요한 자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결정할 때에도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김대현, 2011). 결론적으로 대학생 대상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신용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생은 자유재량액과 구매력이 증가하지만 이에 비해 소비생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자칫하면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를 나타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다(채정숙, 2008).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신용카드사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신용관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대학생의 채무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신용관리와 바람직한 소비가치 형성을 위한 교육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서인주,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에 대한 지식수준과 신용교육 경험, 신용카드 사용경험 및 채무경험 등의 신용 사용경험을 분석하고 신용지식과 신용 사용경험 등에 따른 신용태도와 신용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들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신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 개발 등 신용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용 및 신용교육

1) 신용에 대한 정의

신용사회에서 일컫는 신용이란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금융감독원, 2012a) 또는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한국은행, 2013)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용사회에서 신용은 미래에 대한 약속 이행 가능성과 구매력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의 종류는 크게 판매 신용, 대출 신용, 서비스 신용으로 구분된다. 판매 신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할부 구매 등의 신용거래를 의미한다. 대출 신용은 은행이나 캐피탈 등 여신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신용은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등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대금을 납부하는 후불제 서비스를 의미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할부 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판매 신용에 속하면서도 신용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 신용에 속하기도 한다.

개인 소비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회되는 신용정보는 법률에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이며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2항)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 4월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되고 활용된다. 개인의 신용 정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 대출과 카드 개설 등 신용거래정보, 연체정보와 부도정보를 포함하는 신용도판단정보, 재산과 채무 그리고 소득 등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납정보를 포함하는 공공정보로 구성되어 있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2016)

신용정보가 집중·관리되는 체제로 바뀌면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금융거래와 사회생활에서 연체자에 대한 불이익은 존재한다. 연체자는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거절당하거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등의 제한을 받거나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제약 또는 금지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 및 각종 생활용품의 신용할부구매 시 제약을 받게 되며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신용정보를 조회결과를 채용여부 결정에 반영하는 등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한국은행, 2013).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신용관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개인의 신용관리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연구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신용을 경제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미래에 대한 약속 이행 가능성과 구매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신용교육의 의의와 내용

개인의 적절한 신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위한 신용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신용지식과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한·일 청소년소비자의 신용교육 요구도를 비교하는 김시월(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소비자의 특성에 알맞은 신용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신용사회에서의 개인의 신용은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

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특히 성인소비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있는 대학생들의 신용인식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을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연체자에 대한 대출 억제,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 등의 처방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며 신용교육의 중요함을 지지하였다(김시월, 2007).

대학생의 신용카드사용으로 생기는 문제는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소비자교육 실시 및 소비자 능력 개발 등이 필요함이 시사된 바 있으며(배미경, 2003), 신용카드와 담보대출 등을 포함하는 대출상품의 증가로 개인과 가계의 부채가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소비자교육이 요구된다고 하였다(김시월, 2010).

신용교육의 내용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의 이해와 신용관리방법 등의 공통된 부분도 있었다. 신용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선행논문 등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2015)이 제작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교재에서는 신용교육내용을 신용과 신용등급, 신용관리, 신용카드 관리, 신용카드 이용 시 명심할 사항, 신용회복제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신용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내용요소를 구성하는 것도 제시되고 있다. 김시월(2007)은 신용교육의 내용을 신용의 올바른 이해, 신용의 유지와 관리기법, 신용불량의 위험 및 대처방안 등을 필수적인 교육범위로 제시하였으며 합리적 소비행동과 금융지식을 그 외의 교육범위로 제시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주제를 신용과 신용카드의 두 영역으로 나누었고 각 영역별로 4개의 내용요소를 구성하였다. 신용 영역에서는 신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신용관리방법, 채무불이행자문제, 돈의 관리를 내용요소로 구성하였고 신용카드 영역에서는 신용카드의 기능과 특징, 신용카드의 신청,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지침, 신용카드 문제해결을 내용요소로 구성하였다(김나연, 2006).

또한 송영출(2006)의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및 개인 신용의 관리를 대주제로 하였으며 소주제는 신용과 신용의 관리로 나누었다. 신용영역은 신용의 정의,

신용의 효과, 개인 신용의 평가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용의 관리영역은 과다 신용 사용의 징후와 대처방법, 신용이 나빠지면 받는 불이익, 신용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용을 경제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미래에 대한 약속 이행 가능성과 구매력으로 정의하고 신용교육의 내용은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신용교육의 내용체계를 7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신용교육의 내용체계는 부채관리, 합리적 소비, 신용관리, 신용등급관리,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리로 구분하였다.

2. 신용태도

신용태도는 신용에 대한 태도로서 경제적 의미에 초점을 둔 미래에 대한 약속 이행가능성과 구매력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태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같은 맥락을 가진다.

박영봉(2001)은 태도를 어떤 대상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내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였고, 임종원(2003)은 사람이나 사물과 사안 등을 포함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 호의적(긍정적)이거나 비호의적(부정적)으로 일관적인 반응을 나타내려는 학습된 선유경향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태도는 소비자의 지식을 통합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보관하는 창고”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가 가진 지식들은 태도로 통합되어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인지·감정·행동적인 세 가지 하위체계를 가진다는 접근과 이 세 가지 요인이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단일차원 접근으로 나뉜다.

윤훈현(2005)은 태도를 이전에 제시된 학자들의 정의와 동일하게 보았으나 태도의 구성요소를 인지적·감정적·행위적 요소로 세 가지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겪은 경험이 상표태도에 영향을 주며 인지적인 요소로서의 소비자정보도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지식이 그러한 소비자정보를 조직하고 분류한다고 보았다.

이학식(2015)은 태도에 대한 정의를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감정이라고 제시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에 따라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그리고 태도는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경험과 외부로부터 얻는 정보 혹은 추론 등으로 형성되고 변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태도가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다는 견해와 단일차원이라는 견해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단일차원 견해에서는 태도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감정적인 요소만을 태도로 보며 인지적 요인은 태도의 선행요인이며 행동의욕적 요소는 태도의 결과요인이라고 하였다.

태도에 대한 단일차원 견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지적·감정적·행위적 요소가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진다는 점은 태도의 하위요소 견해와 유사하지만 요소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태도의 단일차원 견해를 따르면 소비자가 가진 지식은 소비자들의 태도를 형성 또는 변화시키고 이러한 태도는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용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적·부정적 태도를 연구했거나 신용을 사용한 후 결제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김정훈(2002)의 연구에서는 신용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 태도, 조건적 허용, 예산관리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영애(2008)는 신용태도를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신용 사용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총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하였다.

신효련(2009)의 연구에서는 신용의 종류 중에서 대출 신용에 속하는 부채에 대한 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부채에 대한 태도 척도를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희영(2008)의 연구에서는 총 5문항으로 신용에 대한 태도 척도를 구성하였

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신용 사용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신용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나서 결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체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태도의 연구는 신용을 사용하는 태도와 신용을 결제하는 태도를 모두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용태도를 신용에 대한 태도로서 경제적 의미에 초점을 둔 미래에 대한 약속 이행가능성과 구매력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인지적 요소인 신용지식과 행위적 요소인 신용 사용경험이 신용태도에 인과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간주하는 단일차원 견해를 따르며 신용태도를 신용 사용에 대한 조건적 허용태도와 부정적 태도,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재까지는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실시된 연구가 다양하게 실시되지 않았으며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과 함께 어떤 내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고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선행연구들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재무적 요인, 지식수준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 특성 중에서 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용 관련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하는 태도를 신용소비자교육 요구도로 정의한 김시월(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결

과 신용지식이 신용소비자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의 결과로 신용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소비자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지식이 교육 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임을 밝히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성지식, 성교육 요구도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성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간호사들의 성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들의 성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교육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양정임, 2013).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력이나 경력도 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미용전공자들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미용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다고 하였으며(조원정,2013) 보육교사의 보육 경력, 학력, 다문화 교육 경력이 다문화 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연구의 결과로 보육 경력과 학력, 다문화 교육 경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이 제시되고 있었다(최진경,2013).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유주영(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학부모의 학력과 가계소득이 자녀의 조기영어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학부모의 학력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조기영어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았다. 금은주(2005)의 연구결과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예절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았고 대학생의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예절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신(2005)은 실업계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보다 인문계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미디어 아트 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성별과 교급은 학교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은 박상환(2017)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김숙향(2016)의 연구 결과에서는 어린이집 학부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은 다문화 교육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 고찰의 결과로 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식, 경력, 전공계열이었고 성별, 학력, 경제적 수준은 선행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도 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교육경험 관련요인

어떤 경험이 교육 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인지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교육경험을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박상환(2017)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중상경험, 경상경험, 학교 안전교육 경험이 제시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학교 안전교육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학교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았고 학교 안전사고 중 중상 또는 경상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학교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최유경(2011)은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가정 유아와의 접촉경험은 다문화교육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다문화 관련과목 이수여부에 따른 다문화교육 필요성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다문화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다문화교육 필요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장예절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직장예절교육의 요구도에 대해 연구한 류영숙(2010)의 연구는 직장예절교육 경험과 요구도는 1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 5개의 항목에 대해 직장예절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직장인의 경우 직장예절교육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직장예절교육 경험이 있는 직장인과 대학생의 경우에 직장예절교육 필요성 인식이 더 높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군인을 대상으로 예비아버지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군인의 예비아버지 교육경험은 예비부모 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화,2009). 그리고 박은실(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유치원교사의 영·유아복지 관련 연수경험이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과 영·유아교육 복지전문가 역할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영·유아복지 관련 연수를 받지 않은 유치원교사들보다 영·유아복지 관련 연수경험이 있는 유치원교사들이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과 영·유아교육복지전문가 역할의 필요성 인식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영(2007)은 유치원 자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자녀영어교

육 참여도가 조기영어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영어교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조기영어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다고 하였다. 금은주(2005)의 연구에서는 관광관련전공 대학생이 예절교육을 이수하기 전과 후의 예절교육 필요성 인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교육 후에 예절교육 필요성 인식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육경험이 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외에도 사고경험이나 접촉경험과 같이 교육내용과 관련한 경험의 유무가 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신용교육 경험과 신용 사용경험 등을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교육인식 관련요인

신용 관련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하는 태도를 신용소비자교육 요구도로 정의한 김시월(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신용소비자교육 요구도에는 신용관리 인식 중 신용책임 및 규범인식, 금융채무불이행자·다중채무자 증가원인 인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로 신용관리 인식 중 신용책임 및 규범인식이 높을수록, 금융채무불이행자·다중채무자 증가원인이 사회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신용소비자교육 요구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박상환(2017)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가 제시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바, 개인의 신용관리 증진을 위한 신용교육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들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신용교육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이 연구는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들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

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정한 이유는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에게 의존적인 소비 행동을 벗어나고 주체적인 소비행동을 하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위한 준비를 하는 데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신용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신용을 사용하는 경험과 신용지식이 신용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신용태도와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은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신용을 미래에 대한 약속 이행 가능성과 구매력으로 정의하고 신용교육내용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체계를 수정·보완하여 7개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신용교육내용은 부채관리, 합리적 소비, 신용관리, 신용등급관리,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리로 구분한다. 또한 신용태도를 미래에 대한 약속 이행 가능성과 구매력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호의적·비호의적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신용태도 관련요인

김숙향(2016)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어린이집 학부모의 다문화 수용성 태도의 하위요인 중 보편성과 관계성 태도는 다문화 교육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양성 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정임(201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성태도, 성교육 요구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성태도는 성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로 성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성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어떤 요인들이 태도 요인을 통해 교육 필요성 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의 신용태도와 신용카드 및 부채 등의 신용 사용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서인주

(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신용에 대한 태도가 용돈,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학생이거나 용돈이 많을수록 신용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학생의 신용카드에 대한 인지적 영역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수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학생 집단이 인지적 영역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학생 집단이 신용카드의 역기능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김영신(2004)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신용을 소비자금융(대출)과 판매신용(할부거래)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비자금융에 속한 현금서비스 이용행동을 요인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부채에 대한 태도는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부채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가졌다고 하였다. 부채에 대한 태도는 대학생의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대학생의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2학년이 4학년보다 부정적 태도가 더 강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용돈과 가계소득의 크기가 부채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김창미(2004)의 연구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대학생의 학년, 주성장지, 자동차 운행 여부, 용돈의 크기, 용돈 만족도, 가계소득, 아버지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학년이 높을수록, 용돈의 크기가 클수록, 용돈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용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나타났고 주성장지가 6개 대도시인 대학생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대학생이,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대학생이 신용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더 갖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배미경(2003)은 대학생들의 연체경험유무에 따른 신용카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로 대학생의 신용태도 영향요인들은 대학생의 성별, 학년, 월평균용돈, 월평균가계소득, 주성장지, 자동차 운행 여부, 아버지 직업, 신용카드의 수,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이용행동, 연체경험 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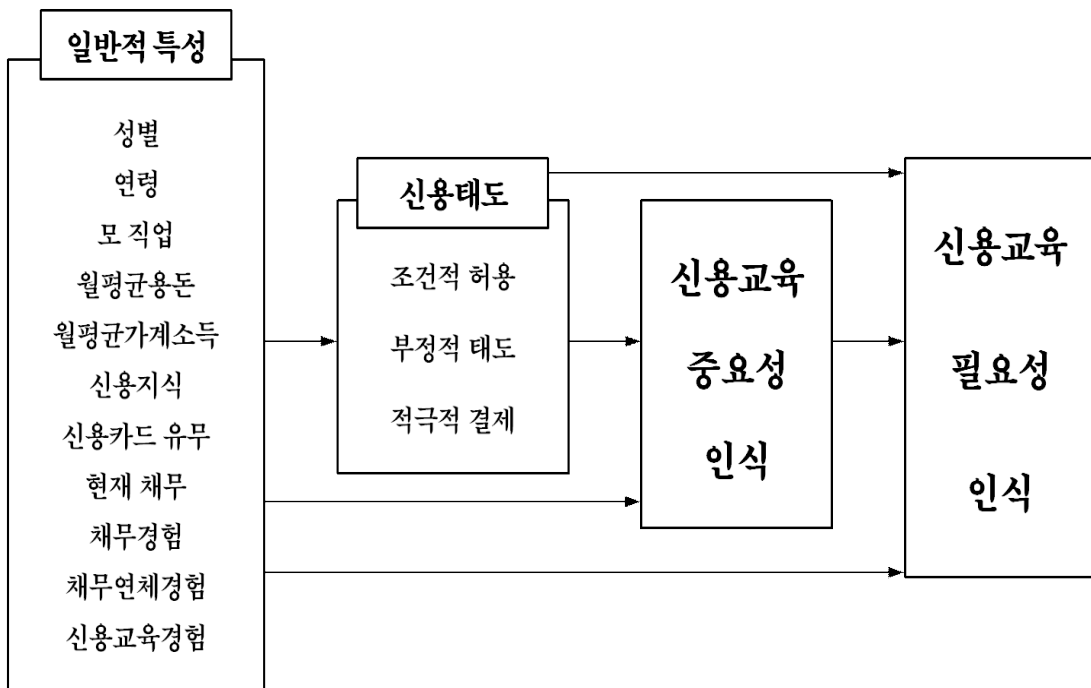
<표 1>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육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

구분	영 향 요 인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신용지식(김시월, 2010) •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성지식(양정임, 2013) • 미용전공자의 최종학력(조원정, 2013) • 보육교사의 보육·다문화교육 경력과 학력(최진경, 2013) •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학력과 가계소득(유주영, 2007) • 대학생의 성별(금은주, 2005) • 고등학교의 계열(박운신, 2005) 	
경 험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학교 안전교육 참여(박상환, 2017) •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 관련과목 이수 여부(최유경, 2011) • 직장인과 대학생의 직장예절교육 경험(류영숙, 2010) • 군인의 예비아버지 교육경험(김정화, 2009) • 유치원교사의 영·유아복지 관련 연수경험(박은실, 2009) •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자녀영어교육 참여도(유주영, 2007) • 관광관련전공 대학생의 예절교육 이수(금은주, 2005)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학교 안전사고 경험(박상환, 2017) •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가정 유아 접촉경험(최유경, 2011)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신용책임 및 규범 인식(김시월, 2010) • 청소년의 금융채무불이행자·다중채무자 증가원인 인식(김시월, 2010) • 청소년의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박상환, 2017)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직 학부모의 다문화 수용성 태도(김숙향, 2016) •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성태도(양정임, 2013) 	
	신용태도 영향요인	성별, 학력, 용돈, 가계소득, 주성장지, 자동차 운행여부, 아버지 직업, 신용카드의 수,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이용행동, 연체경험 유무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신용 사용경험 및 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태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대학생들의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적 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었고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은 삭제되거나 수정·보완되었다. 설문지의 문항은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문항, 재무적 특성 5문항, 신용태도 11문항, 신용지식 11문항,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측정도구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재무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학년, 연령, 소속 단과대학, 가족 수, 부모연령, 부모학력, 부모직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재무적 요인으로는 가계월평균소득, 본인월평균소득, 월평균용돈, 월평균소비지출, 월평균저축, 주거소유형태를 포함하였다. 이들 문항은 선다형 및 서술형으로 구성되었다.

2) 신용 사용경험

신용카드 이용경험은 정우영(2005)의 연구를 기초로 신용카드 유무, 신용카드 명의자, 카드대금 연체경험, 카드대금 결제, 월평균결제대금 등과 관련하여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채무경험은 서인주(2009)를 기초로 대학생활 동안 돈을 빌린 경험, 빌린 돈의 지출항목, 채무원천, 빌린 금액, 채무 상환여부, 채무 상환기간 등과 관련하여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용교육 경험과 인식 척도는 경험의 유무, 교육횟수, 교육시점, 교육자, 교육내용 등과 관련하여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용지식을 측정하는 척도는 김시월(2010),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2012)를 토대로 11문항을 진위형(OX)으로 구성하였고 정답에는 1점, 오답에는 0점을 부여한 후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3) 신용교육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

이 연구에서는 신용을 경제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미래에 대한 약속 이행 가능성과 구매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신용교육의 내용은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신용교육의 내용체계를 7가지로 구분하였다.

신용교육의 중요성 인식 측정도구는 신용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척도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2015)에 제시된 내용체계를 기초로 부채관리, 합리적 소비, 신용관리, 신용등급관리,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리의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901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척도는 <표 2>와 같다.

제주지역 대학생의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은 5점 만점에 4.3점이었고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은 5점 만점에 4.14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체계별 필요성 인식 실태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척도

문항수	내 용	Cronbach' α
7	부채관리, 합리적 소비, 신용관리, 신용등급관리,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 의미·중요성, 신용카드사용·관리	.899

4) 신용태도

이 연구에서 신용태도는 신용에 대한 태도로서 경제적 의미에 초점을 둔 미래에 대한 약속 이행가능성과 구매력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다. 신용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김정훈(2002), 성영애(2008), 신호련(2009), 정희영(2011)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1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베리맥스방법을 이용하였다. 요인은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추출하여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각각의 요인들은 하위문항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 1요인은 ‘조건적 허용’, 제 2요인은 ‘부정적 태도’, 제 3요인은 ‘적극적 결제’로 명명하였다.

이 3개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52.89%였으며, 요인별로는 제 1요인이 25.97%, 제 2요인이 16.53%, 제 3요인이 10.38%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 1요인이 신용태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건적 허용은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극적 결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을 사용한 후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조건적 허용이 .723이었고 부정적 태도가 .584였으며 적극적 결제는 .648이었다. 부정적 태도는 비교적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신용태도 연구를 위해 중요한 요인이기에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 신용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조건적 허용	부정적 인식	적극적 결제	
· 꼭 필요한 것이면 돈을 빌려서 사는 것도 괜찮다.	.766	-.119	.026	.602
· 지금 돈이 없지만 곧 벌게 된다면 빌려서 쓸 수도 있다.	.744	-.133	.022	.571
·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을 빌려도 된다.	.674	.049	-.191	.493
·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된다.	.620	-.171	.196	.452
· 필요하다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497	-.392	.353	.526
· 학생들을 빚을 저서는 안 된다.	-.075	.817	.000	.673
· 나는 돈을 빌리는 것을 싫어한다.	-.055	.643	.028	.418
· 은행은 학생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082	.553	.138	.331
· 돈을 빌려서 휴가를 가야 한다면 가지 않아야 한다.	-.279	.483	.281	.390
· 수입이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029	.119	.824	.695
· 빌린 돈은 약속한 날까지 꼭 갚아야 한다.	.041	.143	.803	.667
아이젠값	2.86	1.82	1.14	
설명변량	25.97	16.53	10.38	
누적변량	25.97	42.50	52.88	
<i>Cronbach' α</i>	.723	.584	.648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비조사는 2017년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기초로 부적절한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성별, 나이, 소속 단과대학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당표집 및 유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941명에게 배부하여 82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기재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109부를 제외하고 71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용 사용경험, 신용교육 경험 및 인식, 신용태도의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를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셋째, 신용태도의 하위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베리맥스방법을 이용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에 따른 신용태도, 신용교육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과 분산팽창계수를 분석하였으며, 각 독립변수들이 신용태도, 신용교육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3.2%, 여자가 56.8%이었다. 가족 수는 4명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27.4%로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은 35.2%로 인문사회계가 가장 많았고, 연령은 19~20세가 38.4%로 가장 많았다. 주거는 자가 소유가 69.4%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연령은 52~57세 미만이 33.8%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연령은 46~50세 미만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의 부모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각각 46.5%와 41.6%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이 32.3%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학생의 26.2%는 어머니가 직업이 없다고 응답했고 그 중에 서비스·자영업이 28.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무적 요인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본인소득이 있는 57.8%의 대학생 중에서 월평균본인소득금액은 40만 원~65만 원 미만이 25.3%로 가장 많았고, 저축을 한다고 응답한 50.7%의 대학생 중에 월평균저축금액은 10만 원~15만 원 미만이 1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5만 원~35만 원 미만이 14.4%로 많았다. 대학생들의 월평균용돈은 40만 원~55만 원 미만이 35.6%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가계소득은 4백~6백만 원 미만이 37.3%로 가장 많았다.

위에서 분석한 재무적 요인의 실태 중에서 본인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비율과 저축을 하는 비율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본인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저축을 하는 대학생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본인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N (%)	변수	구분	N (%)
성별	남자	308 (43.2)	가족 수	4명 미만	84 (11.9)
	여자	405 (56.8)		4명	376 (53.3)
	계	713 (100.0)		5명 이상	246 (34.8)
	계	713 (100.0)		계	706 (100.0)
학년	1학년	174 (24.3)	전공 계열	교육계	105 (14.7)
	2학년	196 (27.4)		인문사회계	252 (35.2)
	3학년	185 (25.9)		자연계	244 (34.1)
	4학년 이상	160 (22.4)		예술의학계	114 (15.9)
	계	715 (100.0)		계	715 (100.0)
연령	18세 이하	79 (11.2)	주거 소유 형태	자가	454 (69.4)
	19~20세	270 (38.4)		전세	71 (10.9)
	21~22세	221 (31.4)		연·월세	106 (16.2)
	23세 이상	133 (18.9)		사택	23 (3.5)
	계	703 (100.0)		계	654 (100.0)
부 연령	49세 미만	119 (18.7)	모 연령	46세 미만	110 (16.9)
	49~52세 미만	199 (31.2)		46~50세 미만	225 (34.7)
	52~57세 미만	214 (33.8)		50~54세 미만	201 (31.0)
	57세 이상	106 (16.6)		54세 이상	113 (17.4)
	계	638 (100.0)		계	649 (100.0)
부 학력	고졸 이하	227 (34.6)	모 학력	고졸 이하	280 (42.2)
	전문대졸	50 (7.6)		전문대졸	71 (10.7)
	대졸	305 (46.5)		대졸	276 (41.6)
	대학원 이상	74 (11.3)		대학원 이상	36 (5.4)
	계	656 (100.0)		계	663 (100.0)
부 직업	사무직	211 (32.3)	모 직업	사무직	116 (17.4)
	전문·경영관리직	180 (27.5)		전문·경영관리직	117 (17.5)
	서비스·자영업	178 (27.2)		서비스·자영업	191 (28.6)
	기타(농·어업, 자유직)	85 (13.0)		기타(농·어업, 자유직)	69 (10.3)
	계	654 (100.0)		없음	175 (26.2)
	계	654 (100.0)		계	668 (100.0)
월평균 본인 소득	없음	267 (42.2)	월평균 저축	안 함	307 (49.3)
	21만 원 미만	30 (4.74)		10만 원 미만	87 (14.0)
	21만~40만 원 미만	75 (11.9)		10만~15만 원 미만	94 (15.1)
	40만~65만 원 미만	160 (25.3)		15만~35만 원 미만	90 (14.4)
	65만 원 이상	101 (16.0)		35만 원 이상	45 (7.2)
	계	633 (100.0)		계	623 (100.0)
월평균 용돈	25만 원 미만	105 (16.7)	월평균 가계 소득	2백만 원 미만	32 (8.5)
	25만~40만 원 미만	169 (26.9)		2백~4백만 원 미만	82 (21.9)
	40만~55만 원 미만	224 (35.6)		4백~6백만 원 미만	140 (37.3)
	55만 원 이상	131 (20.8)		6백만 원 미만	121 (32.3)
	계	629 (100.0)		계	375 (100.0)

2. 대학생의 신용 사용경험 및 교육 실태

1) 신용 사용경험

대학생의 신용 사용경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경험과 채무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26.0%이었으며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 중에서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를 본인이 한다는 경우는 43.1%였고 부모가 한다는 대학생은 56.9%이었다.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명의자를 중복으로 답하도록 한 결과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대학생의 55.6%는 본인명의로 신용카드를 가졌고 43.3%는 가족명의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신용카드를 소유한 대학생 중에서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3%였다. 월평균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6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인 집단과 30만 원 이상 1백만 원 미만 집단이 가장 많았다.

대학생의 36.0%는 대학생활 동안 채무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현재 채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25.3%였고 그 금액은 1만 5천 원 이상 15만 원 미만이 34.5%로 가장 많았다. 평균적인 채무상환기간은 7일 이상 10일 미만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채무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에서 채무연체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25.8%였다. 채무원천은 친구나 친척 등의 지인이 72.3%로 가장 많았다. 빌린 돈의 지출항목은 생활비(교통비, 식비 등)가 7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화활동비(영화, 여행 등), 피복비, 교육비(대학등록금, 학원 등), 정보통신비, 주거비·공과금 순으로 많았다.

서울지역 여자 대학생의 반 이상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낮은 편이다. 정우영(2005)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여대생의 68.82%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중에 43.61%가 본인 카드를 소유했으며 28.46%는 결제대금 연체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소유비율과 연체경험 비율을 서울지역과 비교해보면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소유비율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 대학생의 신용 사용경험 실태

신용카드 사용경험			채무경험		
변수	구분	N (%)	변수	구분	N (%)
신용카드 유무	있음	187 (26.0)	현재채무	있음	65 (25.3)
	없음	532 (74.0)		없음	192 (74.7)
	계	719 (100.0)	계	257 (100.0)	
카드대금연체 경험	있음	27 (16.3)	채무경험	있음	258 (36.0)
	없음	139 (83.7)		없음	459 (64.0)
	계	166 (100.0)	계	717 (100.0)	
카드대금결제	본인	72 (43.1)	채무금액	1만5천원 미만	48 (19.3)
	부모	95 (56.9)		1만5천~15만 원 미만	86 (34.5)
	계	167 (100.0)		15만~1백만 원 미만	70 (28.1)
				1백만 원 이상	45 (18.1)
	계	167 (100.0)	계	249 (100.0)	
신용카드 명의	본인명의	104 (55.6)	채무상환기간	7일 미만	32 (13.4)
	본인명의 가족카드	14 (7.5)		7~10일 미만	112 (46.9)
	가족명의	81 (43.3)		10일 이상	95 (40.0)
	계(중복응답)	199 (106.4)	계	239 (100.0)	
월평균결제대금	6만 원 미만	24 (15.0)	채무원천	가족	120 (48.2)
	6만~30만 원 미만	56 (35.0)		지인(친구·친척)	180 (72.3)
	30만~1백만 원 미만	56 (35.0)		한국장학재단	26 (10.4)
	1백만 원 이상	24 (15.0)	은행대출·현금서비스	5 (2.0)	
	계	160 (100.0)	계	331 (132.9)	
월평균결제대금	6만 원 미만	24 (15.0)	채무용도	생활비	199 (79.6)
	6만~30만 원 미만	56 (35.0)		교육비	36 (14.4)
	30만~1백만 원 미만	56 (35.0)		정보통신비	25 (10.0)
	1백만 원 이상	24 (15.0)		피복비	37 (14.8)
	계	160 (100.0)		문화활동비	84 (33.6)
			주거비·공과금	19 (7.6)	
			계	400 (160.0)	

주) 채무원천, 채무용도는 중복응답임

2) 신용교육 경험 및 인식

제주지역 대학생의 신용교육 경험 및 인식 실태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13.6%였으며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에 교육을 1회 받았다는 경우가 33.0%로 가장 많았다.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언제 교육을 받았는지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고등학교 재학 중에 교육을 받았다는 경우가 6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입학 후가 31.8%, 중학교 재학 중은 22.3%, 중등 입학 전이 12.7% 순으로 많았다.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본인이 교육받았던 기관을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학교가 5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33.3%, 가족이 29.0%, 소비자단체·기업이 12.9% 순으로 많았다. 신용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수강했던 교육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합리적 소비 내용을 교육받았다는 경우가 6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용 의미와 중요성이 50.5%, 신용관리가 34.4%, 신용카드사용 및 관리가 28.0%, 신용등급관리가 20.4%, 부채관리가 16.1%, 신용회복지원제도가 4.3% 순으로 많았다.

신용교육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로 신용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대학생은 8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인식이 10.6%,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1.3% 순으로 많았다. 또한 신용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하위 7개의 내용으로 나누어 물어본 결과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 4.14점이었으며 신용교육이 필요하다는 대학생이 7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통이라는 인식이 20.9%,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0.7% 순으로 많았다. 또한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언제 신용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재학 중이 4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입학 후가 31.1%, 중등학교 재학 중이 16.9%, 중등학교 입학 전이 8.0% 순으로 많았다. 또한 제주지역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신용교육기관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 신용교육기관의 인식은 공공기관(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4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 24.7%, 학교가 24.5%, 소비자단체·기업이 3.2% 순으로 높았다.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교육자의 전문성이 3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는 교육의 효과성이 21.7%, 교육내용의 체계성이 17.4%, 접근성이 12.3%, 조기교육가능성이 11.5%, 교육방법의 다양성이 1.5% 순으로 높았다.

제주지역 대학생의 86.4%가 신용교육 경험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50% 이상은 신용교육내용 중에서 합리적 소비와 신용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교육받은 대학생 비율은 교육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35% 미만이었다. 따라서 신용교육 개발의 과정에서는 대학생들이 신용에 대한 모든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신용사회에서의 신용교육은 중요한 부분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용교육을 실제로 받은 시기와 받고 싶다고 인식하는 시기는 모두 고등학교 재학 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학 입학 후가 두 번째로 높았다. 따라서 신용교육의 실시는 소비자가 스스로 신용을 사용하게 되는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실시되어야 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된 신용교육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신용교육 기관은 학교가 가장 많았지만 공공기관에서 신용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만큼 학교에서는 신용교육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롯하여 교육의 매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신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신용교육에 대한 양질의 향상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신용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표 6> 대학생의 신용교육 경험 및 인식 실태

신용교육 경험			신용교육 인식		
변수	구분	N (%)	변수	구분	N (%)
교육 경험	있음	97 (13.6)	교육 중요성	중요 안함	9 (1.3)
	없음	617 (86.4)		보통	76 (10.6)
	계	714 (100.0)		중요함	634 (88.2)
교육 횟수	1회	43 (47.3)	교육 필요성	필요 안함	5 (0.7)
	2회	30 (33.0)		보통	150 (20.9)
	3회 이상	18 (19.8)		필요함	564 (78.4)
	계	91 (100.0)		계	719 (100.0)
교육 경험 시기	중등 입학 전	12 (12.7)	교육 시기	중등 입학 전	57 (8.0)
	중등 재학 중	21 (22.3)		중등 재학 중	121 (16.9)
	고등 재학 중	65 (69.1)		고등 재학 중	314 (44.0)
	대학 입학 후	30 (31.9)		대학 입학 후	222 (31.1)
	계	128 (136.2)		계	714 (100.0)
교육 기관	가족	27 (29.0)	교육 기관	가족	177 (24.7)
	학교	51 (54.8)		학교	176 (24.5)
	공공기관	31 (33.3)		공공기관	342 (47.6)
	소비자단체·기업	12 (12.9)		소비자단체·기업	23 (3.2)
	계	121 (130.1)		계	718 (100.0)
교육 내용	부채관리	15 (16.1)	기관 선택 이유	교육 효과성	154 (21.7)
	합리적 소비	63 (67.7)		교육내용 체계성	124 (17.4)
	신용회복지원제도	4 (4.3)		교육자 전문성	253 (35.6)
	신용카드사용·관리	26 (28.0)		조기교육 가능	82 (11.5)
	신용관리	32 (34.4)		교육방법 다양성	11 (1.5)
	신용등급관리	19 (20.4)		접근성	87 (12.3)
	신용 의미·중요성	47 (50.5)		계	711 (100.0)
	계	206 (221.5)			

주) 신용교육 경험 중에서 교육경험시기, 교육기관, 교육내용은 중복응답임

3. 대학생의 신용태도

1) 신용태도 실태

제주지역 대학생의 신용태도 실태는 <표 7>과 같다.

신용 사용에 대한 조건적 허용 태도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용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에 의하면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신용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신용 사용에 대한 조건적 허용태도가 5점 만점에 3.39점이었고 신용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5점 만점에 3.44점이었으며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4.27점이었다.

2001년도에 여대생의 신용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당시 여대생들의 신용 사용에 대한 조건적 허용 태도점수가 2.89점인 것에 비해 현재 대학생들의 조건적 허용 태도점수는 3.39점으로 조건에 따라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대학생들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신용 사용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비교해보면 그 당시의 대학생들은 3.63점이었고 현재 제주지역의 대학생들은 3.44점으로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비교적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김정훈, 2002).

그리고 그 당시의 대학생들이나 현재의 대학생들 모두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통해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대학생의 신용태도 실태

문 항	M (SD)
신용 사용에 대한 조건적 허용	3.39 (.64)
· 꼭 필요한 것이면 돈을 빌려서 사는 것도 괜찮다.	3.35 (1.00)
· 지금 돈이 없지만 곧 벌게 된다면 빌려서 쓸 수도 있다.	3.20 (1.00)
·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을 빌려도 된다.	2.92 (.90)
·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된다.	3.70 (.91)
· 필요하다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3.80 (.81)
신용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	3.44 (.72)
· 학생들을 빚을 저서는 안 된다.	3.20 (1.10)
· 나는 돈을 빌리는 것을 싫어한다.	3.66 (1.04)
· 은행은 학생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3.46 (1.06)
· 돈을 빌려서 휴가를 가야 한다면 가지 않아야 한다.	3.45 (1.11)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	4.27 (.67)
· 수입이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4.18 (.82)
· 빌린 돈은 약속한 날까지 꼭 갚아야 한다.	4.37 (.74)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태도의 차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신용태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신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월평균용돈, 월평균가계소득, 신용지식, 채무연체경험이었고 어머니 직업, 신용카드 유무, 현재채무, 채무경험, 신용교육 경험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용태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 사용의 조건적 허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월평균용돈, 신용지식이었다. 대학생의 연령은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건적 허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19~20세 집단과 23세 이상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3세 이상 대학생 집단보다 19~20세 대학생 집단이 조건적 허용태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월평균용돈은 신용 사용의 조건적 허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5만 원 미만 집단과 55만 원 이상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월평균용돈이 25만 원 미만 집단보다 55만 원 집단이 신용 사용의 조건적 허용태도 점수가 높았다.

대학생의 신용지식은 신용 사용의 조건적 허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용지식이 하위(60점 미만) 수준인 집단과 상위(80점 이상) 수준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의 신용지식이 상위(80점 이상) 수준인 집단보다 하위(60점 미만) 수준인 집단이 신용 사용의 조건적 허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월평균가계소득이었다.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이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가계소득은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용지식과 채무연체경험이었다. 신용지식은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용지식이 하위(60점 미만) 수준인 집단은 중위(60~80점 미만) 수준 집단과 상위(80점 이상) 수준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용지식이 하위(60점 미만) 수준인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보다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 점수가 낮았다.

채무연체경험의 유무는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채무연체경험이 있는 대학생보다 채무연체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대학생의 연령이 어릴수록,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신용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신용 사용의 조건적 허용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남자 대학생이거나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 점수가 높았고 신용지식수준이 높거나, 채무연체경험이 없는 대학생인 경우에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 점수가 높았다.

대학생의 신용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신용 사용의 조건적 허용태도를 가지면서 신용을 사용한 후에 소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사용을 한 후에 결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다. 연체자가 되면 금융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생의 신용지식수준을 높여서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신용교육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용지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활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표 8>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태도의 차이

변수	구분	조건적 허용		부정적 태도		적극적 결제	
		M(SD) S	t(F)	M(SD) S	t(F)	M(SD) S	t(F)
성별	남자 여자	3.35(.70) 3.42(.60)	-1.30	3.51(.73) 3.40(.71)	2.15*	4.26(.68) 4.28(.67)	-.52
연령	18세 이하 19~20세 21~22세 23세 이상	3.32(.74) ab 3.47(.59) a 3.40(.61) ab 3.24(.72) b	4.24**	3.39(.72) 3.43(.72) 3.43(.69) 3.56(.76)	1.35	4.41(.58) 4.27(.62) 4.29(.71) 4.18(.75)	1.87
모 직업	사무직 전문·경영관리직 서비스·자영업 기타(농·어업, 자유직)	3.41(.65) 3.39(.62) 3.41(.62) 3.28(.69)	.76	3.41(.76) 3.36(.70) 3.55(.68) 3.54(.64)	2.36	4.25(.71) 4.25(.68) 4.27(.68) 4.35(.57)	.38
월평균 용돈	25만 원 미만 25만~40만 원 미만 40만~55만 원 미만 55만 원 이상	3.25(.68) a 3.43(.65) ab 3.37(.63) ab 3.52(.61) b	3.82*	3.52(.73) 3.40(.71) 3.53(.67) 3.43(.81)	1.33	4.18(.74) 4.26(.66) 4.30(.68) 4.38(.62)	1.83
월평균 가계 소득	4백만 원 미만 4백~6백만 원 미만 6백만 원 이상	3.39(.63) 3.41(.62) 3.32(.71)	.77	3.41(.69) 3.41(.72) 3.62(.73)	3.61*	4.28(.64) 4.25(.70) 4.33(.64)	.58
신용 지식	60점 미만 60~80점 미만 80점 이상	3.44(.60) a 3.40(.62) ab 3.28(.74) b	3.13*	3.39(.68) 3.44(.74) 3.54(.75)	1.79	4.16(.75) a 4.31(.62) b 4.40(.61) b	6.63**
신용카드 유무	있음 없음	3.35(.60) 3.41(.66)	-.96	3.43(.65) 3.45(.75)	-.36	4.26(.67) 4.28(.67)	-.20
현재 채무	있음 없음	3.53(.59) 3.44(.58)	1.07	3.22(.69) 3.41(.66)	-1.92	4.32(.59) 4.32(.65)	.00
채무 경험	있음 없음	3.47(.58) 3.35(.67)	2.38	3.36(.68) 3.49(.74)	-2.21	4.32(.62) 4.25(.69)	1.32
채무 연체경험	있음 없음	3.49(.36) 3.53(.64)	-.23	3.05(.46) 3.26(.77)	-1.33	3.91(.76) 4.23(.55)	-2.94**
신용교육 경험	있음 없음	3.46(.55) 3.38(.66)	1.09	3.51(.75) 3.44(.72)	.88	4.27(.69) 4.27(.67)	-.09

주) *p<.05, **p<.01, ***p<.001

2) 신용태도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대학생의 신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와 분산팽창계수를 분석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부표 5>와 같다. 회귀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모두 0.5미만이었고, 분산팽창계수는 1.012~1.488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 따르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신용 사용의 조건적 허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의 연령이었고 설명력은 2.3%이었다. 그리고 신용 사용 후 적극적 결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의 연령, 월평균용돈, 신용지식, 채무경험, 채무연체경험이었고 설명력은 5.3%이었다. 또한 대학생의 성별, 어머니 직업의 유무, 신용카드 유무, 현재 채무, 신용교육 경험은 신용태도의 하위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연령은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사용 후 적극적 결제 태도에 대해 대학생의 연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월평균용돈과 신용지식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적극적 결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의 연령이었다. 또한 채무경험이 있는 대학생이거나 채무연체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신용 사용 후 적극적 결제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앞서 제시된 t-test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가 강해지고 신용 사용 후 적극적 결제 태도는 약해진다. 그리고 대학생의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신용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채무경험이 있거나 채무연체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신용 사용 후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를 더 강하게 가진다.

<표 9> 신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조건적 허용		부정적 태도		적극적 결제	
	B	β	B	β	B	β
성별(남)	-.037	-.018	.133	.066	.026	.013
연령	-.032	-.063	.046	.091*	-.080	-.157***
모 직업 유무 (있음)	-.028	-.013	.078	.035	-.082	-.037
월평균용돈	.004	.088	-.001	-.014	.006	.144***
신용지식	-.005	-.074	.002	.035	.007	.100*
신용카드 유무 (있음)	-.037	-.017	-.078	-.035	.003	.001
현재 채무 (있음)	.099	.029	-.281	-.082	.122	.035
채무경험 (있음)	.042	.020	-.151	-.072	.216	.104*
채무연체경험 (있음)	.063	.009	-.199	-.029	-.668	-.096*
신용교육 경험 (있음)	.082	.028	.165	.056	.111	.038
상수	1.057		-1.079		.950	
Adj-R ²	.824		.023		.053	
F	1.217		2.469**		4.422***	

1) *p<.05, **p<.01, ***p<.001

2) 성별, 모 직업 유무, 신용카드 유무, 현재 채무, 채무경험, 채무연체경험, 신용교육 경험은 더미변수로 () 집단이 1, 기타 집단은 0임

4. 대학생의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의 차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의 연령, 어머니 직업, 신용교육 경험이었고 성별, 월평균용돈, 월평균가계소득, 신용지식, 신용카드 유무, 현재 채무, 채무경험, 채무연체경험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의 연령은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하위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직업은 대학생의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집단 간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대학생 집단과 어머니가 기타(농·어업, 자유직) 직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대학생 집단보다 어머니가 기타(농·어업, 자유직) 직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집단이 신용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신용교육 경험은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신용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의 결과로 대학생의 연령이 많거나, 어머니 직업이 기타(농·어업, 자유직)인 대학생이거나,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의 차이

변수	구분	M (SD)	S	t(F)
성별	남자 여자	4.30 (.75) 4.30 (.69)		-.11
연령	18세 이하 19~20세 21~22세 23세 이상	4.34 (.78) 4.25 (.76) 4.26 (.66) 4.48 (.61)		2.96*
모 직업	사무직 전문·경영관리직 서비스·자영업 기타(농·어업, 자유직)	4.23 (.72) 4.27 (.72) 4.29 (.69) 4.55 (.58)	a ab ab b	3.46*
월평균 용돈	25만 원 미만 25만~40만 원 미만 40만~55만 원 미만 55만 원 이상	4.23 (.72) 4.37 (.71) 4.30 (.69) 4.36 (.68)		1.02
월평균 가계 소득	4백만 원 미만 4백~6백만 원 미만 6백만 원 이상	4.33 (.74) 4.36 (.73) 4.44 (.71)		.66
신용 지식	60점 미만 60~80점 미만 80점 이상	4.26 (.72) 4.28 (.73) 4.41 (.66)		2.23
신용카드 유무	있음 없음	4.32 (.71) 4.29 (.72)		.48
현재 채무	있음 없음	4.28 (.84) 4.33 (.67)		-.55
채무 경험	있음 없음	4.33 (.71) 4.28 (.72)		.76
채무 연체경험	있음 없음	4.13 (.81) 4.30 (.87)		-.73
신용교육 경험	있음 없음	4.47 (.66) 4.28 (.72)		2.55*

주) *p<.05, **p<.01, ***p<.001

2)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대학생의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와 분산팽창계수를 분석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부표 5>와 같다. 회귀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모두 0.5미만이었고, 분산팽창계수는 1.019~1.497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 의하면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용교육 경험과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4%이었다. 대학생의 성별, 연령, 어머니 직업의 유무, 월평균용돈, 신용 지식, 신용카드 유무, 현재 채무, 채무경험, 채무연체경험, 신용 사용의 조건적 허용 태도,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는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이 높다는 결과는 앞서 제시된 t-test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연령이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t-test 분석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는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용교육 경험보다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거나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를 가질수록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B	β
성별(남)		-.030	-.021
연령		.027	.075
모 직업 유무(있음)		-.016	-.010
월평균용돈		.001	.022
신용지식		.001	.025
신용카드 유무(있음)		-.037	-.024
현재 채무(있음)		-.019	-.008
채무경험(있음)		.071	.049
채무연체경험(있음)		.047	.010
신용교육 경험(있음)		.271	.133**
신용태도	조건적 허용	-.045	-.064
	부정적 태도	.068	.097
	적극적 결제	.143	.205***
상수		3.620	
Adj-R ²		.064	
F		4.212***	

1) *p<.05, **p<.01, ***p<.001

2) 성별, 모 직업 유무, 신용카드 유무, 현재 채무, 채무경험, 채무연체경험, 신용교육 경험은 더미변수로 () 집단이 1, 기타 집단은 0임

5. 대학생의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의 차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의하면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채무연체 경험과 신용교육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어머니 직업, 월평균용돈, 월평균가계소득, 신용지식, 신용카드 유무, 현재 채무, 채무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채무연체경험은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채무연체경험이 있는 대학생보다 채무연체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신용교육 경험은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이 더 높았다.

분석의 결과로 대학생이 채무연체경험이 없거나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인 경우에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신용교육이 일회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정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대학생들은 신용교육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의 차이

변수	구분	M (SD)	t(F)
성별	남자	4.17 (.60)	1.27
	여자	4.11 (.56)	
연령	18세 이하	4.17 (.52)	1.19
	19~20세	4.09 (.63)	
	21~22세	4.12 (.55)	
	23세 이상	4.20 (.55)	
모 직업	사무직	4.08 (.56)	1.67
	전문·경영관리직	4.11 (.53)	
	서비스·자영업	4.20 (.58)	
	기타(농·어업, 자유직)	4.23 (.66)	
월평균 용돈	25만 원 미만	4.15 (.57)	.19
	25만~40만 원 미만	4.14 (.59)	
	40만~55만 원 미만	4.17 (.57)	
	55만 원 이상	4.18 (.55)	
월평균 가계 소득	4백만 원 미만	4.08 (.60)	1.58
	4백~6백만 원 미만	4.20 (.57)	
	6백만 원 이상	4.19 (.56)	
신용 지식	60점 미만	4.07 (.61)	2.87
	60~80점 미만	4.18 (.57)	
	80점 이상	4.17 (.51)	
신용카드 유무	있음	4.20 (.55)	1.73
	없음	4.11 (.59)	
현재 채무	있음	4.18 (.58)	.64
	없음	4.13 (.57)	
채무 경험	있음	4.15 (.57)	.62
	없음	4.13 (.58)	
채무 연체경험	있음	3.84 (.71)	-2.75**
	없음	4.29 (.50)	
신용교육 경험	있음	4.35 (.54)	3.83***
	없음	4.11 (.58)	

주) *p<.05, **p<.01, ***p<.001

2)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대학생의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와 분산팽창계수를 분석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부표 5>와 같다. 회귀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모두 0.5미만이었고, 분산팽창계수는 1.030~1.497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 의하면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용카드 유무, 현재 채무, 채무연체경험, 신용교육 경험,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29.1%이었다. 대학생의 성별, 연령, 어머니 직업의 유무, 월평균용돈, 신용지식, 채무경험, 신용 사용의 조건적 허용태도는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 채무가 있는 대학생이거나 채무연체경험이 없거나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은 모두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 신용교육 경험,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 현재 채무, 채무연체경험, 신용카드 유무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이 높을수록,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를 가질수록,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이거나,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현재 채무가 있는 대학생이거나, 채무연체경험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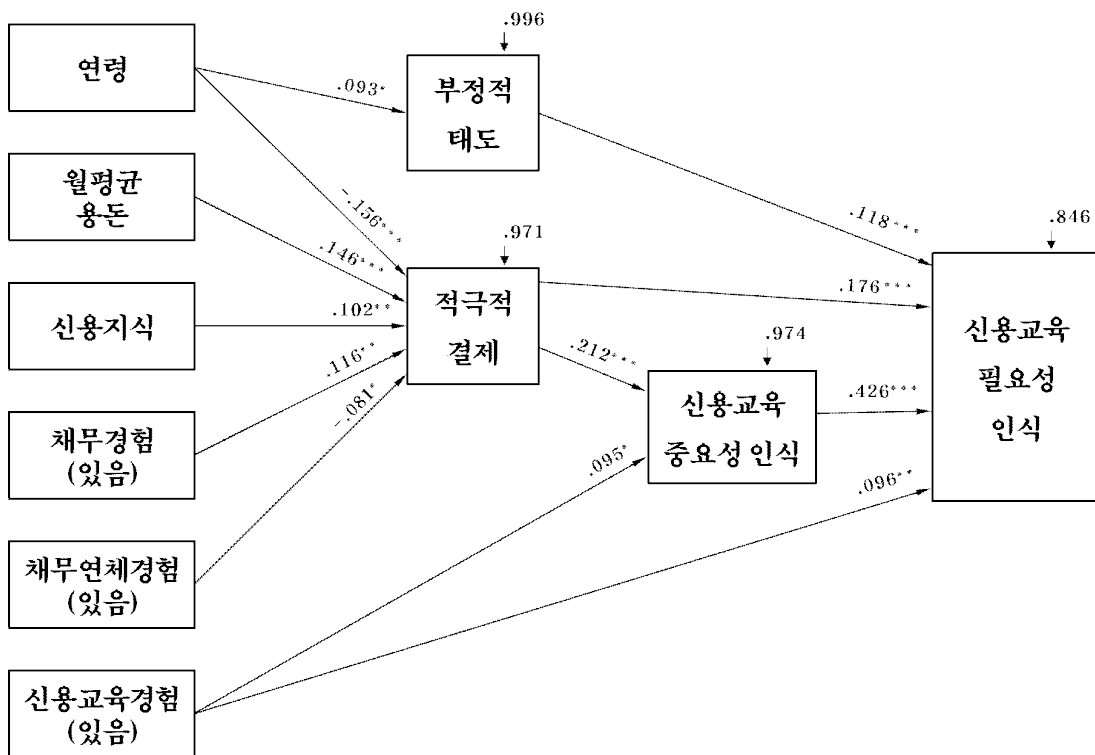
독립변수		B	β
성별(남)		.070	.061
연령		.002	.007
모 직업 유무(있음)		.020	.016
월평균용돈		-.001	-.027
신용지식		.000	.009
신용카드 유무(있음)		.108	.084*
현재 채무(있음)		.195	.100*
채무경험(있음)		-.025	-.021
채무연체경험(있음)		-.366	-.093*
신용교육 경험(있음)		.185	.112**
신용태도	조건적 허용	.023	.040
	부정적 태도	.058	.102**
	적극적 결제	.100	.177***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340	.420***
상수		2.552	
Adj-R ²		.291	
F		18.960***	

1) *p<.05, **p<.01, ***p<.001

2) 성별, 모 직업 유무, 신용카드 유무, 현재 채무, 채무경험, 채무연체경험, 신용교육 경험은 더미변수로 () 집단이 1, 기타 집단은 0임

6.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들의 인과적 효과

대학생의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고 인과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1) *p<.05, **p<.01, ***p<.001

2) 채무경험, 채무연체경험, 신용교육 경험은 더미변수로 () 집단이 1, 기타 집단은 0임

<그림 2>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관련 요인들의 경로모형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신용교육 경험은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모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용 사용 후 적극적으로 결제하려는 태도와 신용교육 경험은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대학생의 연령은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를 통하여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월평균용돈, 신용지식, 채무경험, 채무연체경험은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를 통하여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14>에 의하면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가장 큰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 신용교육 경험,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 월평균용돈, 연령과 채무경험, 신용지식, 채무연체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의 결과로 신용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 신용 사용 후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은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대해 매개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이 높을수록,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가 높을수록,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거나,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채무경험이 있거나, 신용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채무연체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인 경우에 신용교육을 더 필요로 한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신용교육 경험은 여러 차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된다. 또한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교육 개발 과정에서 신용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신용 사용과 신용결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즉 대학생들이 신용교육을 받음으로써 급변하는 신용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절한 신용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용교육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표 14>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적 영향

독립변수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부정적 인식	적극적 허용	계	
연령	-	-	.011	-.042	-.031	-.031
월평균용돈	-	-	-	.039	.039	.039
신용지식	-	-	-	.027	.027	.027
채무경험 (있음)	-	-	-	.031	.031	.031
채무연체경험 (있음)	-	-	-	-.022	-.022	-.022
신용교육 경험 (있음)	.096	.040	-	-	.040	.136
부정적 태도	.118	-	-	-	-	.118
적극적 결제	.176	-	-	-	-	.176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426	-	-	-	-	.426

주) 채무경험, 채무연체경험, 신용교육 경험은 더미변수로 () 집단이 1, 기타 집단은 0임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에 대한 지식수준과 신용교육 경험, 신용카드 사용경험 및 채무경험 등의 신용 사용경험을 분석하고 신용 지식과 신용 사용경험 등에 따른 신용태도와 신용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들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신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 개발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대학생의 86.4%가 신용교육 경험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50% 이상은 신용교육내용 중에서 합리적 소비와 신용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교육받은 대학생 비율은 교육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35% 미만이었다. 따라서 신용교육 개발의 과정에서는 대학생들이 신용에 대한 모든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제주지역의 대학생은 26.0%이었으며 신용카드를 소유한 대학생 중에서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3%였다. 그리고 제주지역 대학생의 36.0%는 대학생활 동안 채무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현재 채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25.3%였다. 채무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에서 채무연체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25.8%였다.

셋째,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신용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신용 사용에 대한 조건적 허용태도가 5점 만점에 3.39점이었고 신용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5점 만점에 3.44점이었으며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4.27점이었다.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태도점수보다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태도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대학생의 신용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신용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신용을 사용한 후에 결제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지 않은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신용을 사용한 후에 결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고 연체자가 되면 금융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생의 신용지식수준을 높여서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신용교육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용지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활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 직업이 기타(농·어업, 자유직)인 대학생이거나,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거나,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이 높았다. 신용을 사용한 후에 결제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연체를 할 위험성을 갖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용을 사용한 후에 적극적으로 결제하려는 태도를 가진 대학생들이 신용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신용태도가 형성된 대학생일수록 신용교육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거나, 현재 채무가 있는 대학생이거나, 채무연체경험이 없거나, 신용교육 경험이 있거나, 신용 사용의 부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신용 사용 후 적극적인 결제 태도를 가질수록,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이 높을수록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신용교육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신용교육이 일회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정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용교육 개발과정에서 신용교육이 대학생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곱째, 신용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 신용 사용 후 적극적으로 결제하는 태도,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은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에 대해 매개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교육 개발

과정에서 신용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신용을 사용하는 것과 신용을 사용한 후에 결제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신용교육을 받음으로써 급변하는 신용사회에서 정보의 부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절한 신용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주체적으로 신용교육을 개발 및 제공하여 대학생들의 올바른 신용태도를 형성과 신용지식 습득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분석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대학생의 87.4%가 신용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없었으며 대학생들은 전문적인 교육자에게 신용교육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가 실시하는 신용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들이 신용교육을 받음으로써 급변하는 신용사회에서 정보의 부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절한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학생들의 신용지식과 관련 정보의 습득 및 올바른 태도의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신용교육을 개발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사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에게 의존적인 재무행동을 벗어나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독립적인 신용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연구결과 밝혀진 신용교육에 대한 조기 교육의 요구와 접근성이 높은 학교에서 신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하는 것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교육 관련 선행연구의 부족과 여러 제약적 요인으로 인하여 각 요인을 측정하는 척도의 구성 및 분석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신용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시사된다.

둘째, 이 연구는 제주지역 대학생 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신용태도와 신용교육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에 대해 횡단분석을 실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에 대한 지식수준과 신용교육 경험, 신용카드 사용경험 및 채무경험 등의 신용 사용경험을 분석하고 신용 지식과 신용 사용경험 등에 따른 신용태도와 신용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들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올바른 신용태도 형성과 적절한 신용관리 행동증진을 위한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강수영·김정숙(2008). 제주지역 성인소비자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태도 및 필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3), 81-103.
- 금융감독원(2015).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금융감독원(2012a). 중·고등학교 교사용 금융·신용의 이해.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금융감독원(2012b). 금융생활안내서_은행중소서민금융편.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금은주(2007). 관광관련전공 대학생의 예절교육 필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 : 예절교육 이수 전·후의 차이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관광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수영·이승희(2011). 청소년의 명품 복제품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3), 82-93.
- 김나연·이기춘(2006). 체제적 교수설계를 적용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1), 119-145.
- 김대현(2011). 교육과정의 이해. 학지사
- 김미라·김기욱(201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소비자태도와 인지 및 사용카드 결정요인. 생활과학학회지, 15, 53-78.
- 김미리·김시월(2011a).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및 금융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2), 1-28.
- 김미리·김시월(2011b). 대학생소비자의 금융 이해력 및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09-123.
- 김성숙·장혜경(2005).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패턴과 과소비성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8(3), 21-42.
- 김숙향(2016). 유아교육기관 학부모들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와 다문화 교육 필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월(2007). 청소년소비자의 온라인 신용소비자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한·일 청소년소비자의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 지, 25(3), 169-185.
- 김시월·조향숙(2010). 한·일 청소년 소비자의 신용교육 요구도 비교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3(2), 73-103.
- 김영신(2004). 대학생소비자의 부채에 대한 태도와 현금서비스 이용행동. *소비자 문화연구*, 7(4), 23-41.
- 김영신(2005).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인과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5-26.
- 김은정·문정숙(2010). 가정환경, 학생특성, 금융교육 경험에 따른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차이검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1), 67-77.
- 김정화(2009). 군인을 대상으로 한 예비아버지교육이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아버지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훈(2002).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0(3), 165-175.
- 김창미(2005).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대한 인과분석 : 현금서비스 사용행동과 연체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77-91
- 김창미(2004).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 및 관련변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두경자·서인주(2008). 대학생의 신용인식 및 신용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13.
- 류영숙(2010). 직장예절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 대학생과 직장인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주영(2000).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유아 소비자교육 필요성 인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희·여정성(2005).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2), 191-198.
- 박상환(2017). 학교 안전교육 필요성의 결정요인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봉(2001). *소비자행동론*. 학현사.
- 박윤신(2005). 미디어 아트(Media Art)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1

- 학년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실(2009). 영·유아교육복지의 인식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구양숙(2014). 대학생의 과시소비성향과 청바지 착용태도 및 구매행동.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1), 65-76.
- 박현주·박숙현(2014). 과시소비성향 집단별 뷰티관여가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1), 137-144.
- 배미경(2003). 효율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초연구 : 대학생 소비자를 중심으로. 과학논집, 29, 33-42
- 백진영·오명석(2015). 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8(2), 3-43.
- 서인주·두경자(2007). 대학생 소비자의 화폐사용 태도와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재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23-43.
- 서인주·윤용희(2009). 대학생의 신용관리를 위한 채무인식 및 채무경험 실태.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5(0), 1-11.
- 성영애·정희영(2008).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상태, 신용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의 분석 : 연체미경험자와의 비교. 소비자학연구, 19(4), 65-82.
- 손혜원(2015). 중학교 미술에서 전통회화교육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연구 : 2009개정 미술교육과정 수목화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영출(2006). 신용사회에서의 대학생 금융교육 교과목 개발. 광운대학교
- 신효련·홍은실(2009). 대학생의 부채에 대한 태도와 의복구매행동.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1), 31-47.
- 양정임·정미현(2013). 간호사의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3), 260-270.
- 오영수·도규태(2005). 고등학생의 금융 이해도와 바람직한 금융교육 방향 탐구. 중등교육연구, 53(1), 283-300.
- 유주영(2007).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하정·신민경, 정순희(2012).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실태와

- 재무관리행태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5(3), 59-88.
- 윤훈현(2005). 소비자행동론. 석정
- 이동주·손세호·최은수·이진명(2003). 보이지 않는 돈, 신용. 거름.
- 이재희(1996).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인식 및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5(2), 99-107.
- 이학식·안광호·하영원(2015). 소비자행동 마케팅전략적 접근(제 6판). 집현재
- 장동호(2012). 가계 신용카드 채무의 결정요인 분석: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1), 227-255.
- 장현선(2009). 인터넷 쇼핑에서의 충동구매 측정을 위한 척도의 개발 및 특성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27-139.
- 정영선·조영달·박형준(2013). 청소년의 합리적인 금융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시민교육연구*, 45(3), 201-227.
- 정우영·정성지·장남경(2005). 여자 대학생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의류 구매 성향에 관한 연구 - 충동 구매 성향, 유행 추구 성향, 과시 소비 성향을 중심으로 -. *복식문화연구*, 13(5), 819-832.
- 정현주(2011). 교육복지서비스 전문인력 필요성에 대한 제주지역 교사들의 인식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영·성영애(2011). 신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부모자녀간 상관관계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39-53.
- 정희영(2008). 신용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에 있어서의 부모-자녀간 상관관계 분석.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원정(2013). 미용진공자들의 교수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과 요구도 조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숙(2010). 고등학생의 신용 이해력 수준 및 결정변인에 관한 연구-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최현자(2006). 소비자의 신용과다사용 문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7(2), 155-178.
- 주문자·김영신(2004). 대학생 소비자의 충동구매성향에 대한 인과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47-58.

- 채정숙·김정숙·유두련·김정희·박명숙(2008).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교육. 신정.
- 최유경(2011).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및 요구.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호·진영선·김은진(2007). 신용카드 지식, 연체에 대한 귀인, 그리고 태도 및 이용 의도간의 관계. 상품학연구, 25(1), 89-99.
- 최진경(2013).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교육 필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자·김경혜·김은정·홍은정·권한숙(2016). 고등학교 가정과학. 천재교육
- 최현자·최은진(2005).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16(3), 109-132.
- 한국은행(2013). 일반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6판). 한국은행
- Richard P. Bagozzi, Zeynep Gurhan-Canli, Joseph R.Priester(2004). 소비자 행동의 심리학(김완석, 이성수 역). 시그마프레스

[기사, 법률, 참고사이트]

- 한국일보(2016, 08, 16).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 한라일보(2017, 03, 29). 저축은 사치... 빚 갚고 나니 빈털터리.
- 한국일보(2016, 10, 14). 학자금대출 빚 10만 원 못 갚아 신용불량자 전략... 무려 456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09.30)
- 은행연합회(2016.10.24)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AllCredit http://www.allcredit.co.kr/ADFCCommonSv1?SCRN_ID=s08018906635
- NICE신용정보 <http://www.niceamc.co.kr/kr/guide/awareness.do>

<Abstract>

Study on Awareness of the Need for Credit Edu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ang Min-hui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 Dr. Kim Jeong-sook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perceived of importance and necessity of a sound credit attitude and credit education according to knowledge of credit processes and credit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in Jeju region. Moreover, it also intends to analyze the relative impact of factors affecting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a good credit education and analyze their causal effects. The study's result will provide useful reference material for planning credit education such as the method and material development to help effectively conduct sound credit educ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1 to March 31, 2017. The questionnaire was sent to 941 students and 828 were collected. Excluding 109 responses that were poor or not credible, 719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echniques such as factor analysis, chi verification,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multi-range test by Sheff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variance inflation factor,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8.0 program.

Key results of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results reported that 86.4% of college students have no experience of any credit education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great shortage of credit edu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oreover, although more than 50% of college students with experience of credit education were educated in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rational consumption and credit, fewer than 35% received any education on other relevant subjects.

Second, the percentage of students holding a credit card was 26.0%, and 16.3% of them had experience of failing to make payments. Moreover, 36.0% of students answered that they had experienced debt during their college years, and 25.3% of them still had debt. Among the college students with experience of debt, 25.8% had experience with failing to make payments.

Third, college students in Jeju region received 3.39 out of 5 points for a conditional permissive attitude towards credit use, 3.44 points for a negative attitude to credit use, and 4.27 points for a favorable attitude to credit payment.

Fourth,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credit education was higher among those students who had credit cards, who currently had debt, who had no experience of failure to meet demands for payment, who had experience of credit education, who had a negative attitude toward credit use, who had an active attitude towards making payments after credit use, and finally high among those who had a high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redit education.

Fifth, the results showed that a negative attitude toward credit use, an active attitude to payment after credit use, and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redit education were the mediating factors for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credit educ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lative impact of factors affecting awareness of the need for credit education and analyzed their causal effects. This study's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present measures to increase awareness in college students on the need for credit education in order to form the correct attitude towards using credit.

부 록

<부표 1> 대학생의 신용교육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 실태

요인		M (SD)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4.30 (.72)
필요성 인식	부채관리	4.04 (.74)
	합리적 소비	4.14 (.79)
	신용관리	4.23 (.65)
	신용등급관리	4.14 (.72)
	신용회복지원제도	4.00 (.77)
	신용 의미·중요성	4.19 (.72)
	신용카드사용·관리	4.21 (.72)
	계	4.14 (.58)

<부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지식

요인	구분	신용지식	
		M(SD) S	t(f)
성별	남자	65.70(16.22)	2.35*
	여자	62.85(15.86)	
월평균 본인소득	21만 원 미만	56.97(17.20)	2.86*
	21만~40만 원 미만	56.18(14.69)	
	40만~65만 원 미만	64.26(15.96)	
	65만 원 이상	65.80(15.27)	

1) *p<.05, **p<.01, ***p<.001

2) 학년, 연령, 전공계열, 가족 수, 부모 연령, 부모 학력, 부모 직업, 모 직업 유무, 월평균가계소득, 월평균본인소득, 월평균저축, 월평균용돈, 주거소유형태, 신용카드유무, 신용카드 결제대금, 신용카드 연체경험, 채무경험, 현재채무, 채무금액, 채무연체경험, 신용교육 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

<부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카드 유무

요인	구분	N(%)			X ²
		있음	없음	계	
학년	1학년	37(21.3)	137(78.7)	174(100.0)	11.96** (df=3)
	2학년	42(21.4)	154(78.6)	196(100.0)	
	3학년	50(27.0)	135(73.0)	185(100.0)	
	4학년 이상	57(35.6)	103(64.4)	160(100.0)	
연령	20세 이하	70(20.1)	279(79.9)	349(100.0)	12.85*** (df=1)
	21세 이상	113(31.9)	241(68.1)	354(100.0)	
전공계열	교육계	19(18.1)	86(81.9)	105(100.0)	8.86* (df=3)
	인문사회계	61(24.2)	191(75.8)	252(100.0)	
	자연계	66(27.0)	178(73.0)	244(100.0)	
	예술의학계	40(35.1)	74(64.9)	114(100.0)	
부 학력	4년제 대졸 미만	75(22.1)	265(77.9)	340(100.0)	5.23* (df=1)
	4년제 대졸 이상	112(29.6)	267(70.4)	379(100.0)	
모 직업	사무직	37(31.9)	79(68.1)	116(100.0)	13.57** (df=3)
	전문·경영관리직	23(19.7)	94(80.3)	117(100.0)	
	서비스·자영업	57(29.8)	134(70.2)	191(100.0)	
	기타(농·어업, 자유직)	8(11.6)	61(88.4)	69(100.0)	
월평균 저축	5만 원 미만	12(42.9)	16(57.1)	28(100.0)	12.50* (df=4)
	5만~10만 원 미만	10(16.9)	49(83.1)	59(100.0)	
	10만~15만 원 미만	24(25.5)	70(74.5)	94(100.0)	
	15만~35만 원 미만	26(28.9)	64(71.1)	90(100.0)	
	35만 원 이상	20(44.4)	25(55.6)	45(100.0)	
월평균 가계소득	4백만 원 미만	32(28.1)	82(71.9)	114(100.0)	8.75* (df=2)
	4백~6백만 원 미만	30(21.4)	110(78.6)	140(100.0)	
	6백만 원 이상	46(38.0)	75(62.0)	121(100.0)	

1) *p<.05, **p<.01, ***p<.001

2) 성별, 가족 수, 부모 연령, 모 학력, 부 직업, 월평균본인소득, 월평균용돈, 주거소유형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

<부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용 사용경험

요인	구분	신용카드 결제대금(만 원)		채무총액(천 원)	
		M(SD) S	t(f)	M(SD) S	t(f)
연령	20세 이하	33.52(64.25)	-2.02*	393.90(1023.61)	-2.59*
	21세 이상	60.09(100.62)		833.59(1592.86)	
부 학력	중졸 이하	243.33(395.52) a	3.81**	1820.00(3366.92)	2.05
	고졸	47.65(65.41) b		671.60(1591.72)	
	전문대졸	34.88(42.51) b		896.40(1526.01)	
	대졸 대학원 이상	45.55(62.43) b 64.76(126.20) b		415.34(890.77) 809.35(1386.06)	
부 직업	사무직	38.07(68.225)	1.659	290.92(486.76) a	4.22**
	전문·경영관리직	53.04(91.532)		73.26(1618.86) ab	
	서비스·자영업	73.55(124.09)		425.57(800.70) ab	
	기타(농·어업, 자유직)	26.19(29.63)		1239.67(2179.24) b	
월평균 용돈	25만 원 미만	45.04(77.37) a	4.27**	899.18(1824.71)	.691
	25만~40만 원 미만	26.43(47.73) ab		541.05(1498.53)	
	40만~55만 원 미만	44.02(76.02) ab		567.76(1165.07)	
	55만 원 이상	97.51(135.38) b		777.07(1390.14)	
주거 소유 형태	자가	48.87(93.33)	1.302	389.31 (775.35) a	6.53***
	전세	17.15(17.13)		428.72 (803.21) ab	
	연·월세	75.34(106.18)		1313.80(2321.94) b	
	사택	38.33(35.31)		1191.67(2412.50) ab	
현재 채무	있음	436.57(169.60)	2.36*	1718.19(2034.57)	5.54***
	없음	28.18(48.24)		254.70(745.99)	

1) *p<.05, **p<.01, ***p<.001

2) 성별, 학년, 전공계열, 가족 수, 부모 연령, 모 학력, 모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월평균본인소득, 월평균저축, 신용카드 유무, 월평균결제대금, 카드대금 연체경험, 채무경험, 채무연체경험, 채무총액, 신용교육 경험, 신용지식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

<부표 5> 회귀분석에 사용된 요인들의 상관관계

	연령	모 연령	월평균 용돈	신용지식	신용태도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조건적 허용	부정적 태도	적극적 결제		
연령	1								
모 연령	.455**	1							
월평균 용돈	.190**	.144**	1						
신용지식	.049	-.048	.025	1					
신용태도	조건적 허용	-.061	-.046	.076	-.085*	1			
	부정적 인식	.093*	.033	-.006	.041	.000	1		
	적극적 결제	-.116**	-.089*	.123**	.112**	.000	.000	1	
신용교육 중요성 인식	.063	.045	.058	.046	-.051	.119**	.213**	1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030	.031	.029	.073	.041	.171**	.268**	.488**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대학생들의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과정 : 장 민 희 지도교수 : 김 정 숙

I. 각 문항에 대해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돈을 빌리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은 빚을 저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돈을 빌린다.	①	②	③	④	⑤
4	은행은 학생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돈을 빌려서 휴가를 가야 한다면 가지 않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필요하다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을 빌려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꼭 필요한 것이면 돈을 빌려서 사는 것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9	지금 돈이 없지만 곧 벌게 된다면 빌려서 쓸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값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입이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빌린 돈은 약속한 날까지 꼭 갚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 문항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세요.

문 항	O / X	
1	공과금을 연체하면 신용도가 낮아진다.	
2	소비자신용을 사용하면 미래 소득의 융통성이 증가한다.	
3	한 금융기관과 오래 거래하는 것과 신용도는 관계가 없다.	
4	신용등급이 10등급에 가까울수록 대출이자율이 높아진다.	
5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연체자를 정하는 기준은 동일하다.	
6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은 신용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7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이용 여부도 신용등급 평가요인이 된다.	
8	대출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진다.	
9	전기나 가스 등을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소비자신용에 속한다.	
10	1천원 미만의 카드대금을 하루 연체하는 것은 신용도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목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도가 낮아진다.	

IV. 각 문항에 대해 답을 적거나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1. 신용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1-1번으로) ② 없다 (2번으로)

1-1. 교육은 몇 번 받았습니까? ()회

1-2. 교육을 언제 받았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초등학교 입학 전 ② 초등학교 재학 중 ③ 중학교 재학 중
④ 고등학교 재학 중 ⑤ 대학교 재학 중

1-3.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가족(부모, 형제 등) ② 학교 ③ 공공기관(한국소비자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④ 소비자단체 ⑤ 기업 ⑥ 기타 ()

1-4.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았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부채관리 ② 합리적 소비 ③ 신용회복지원제도 ④ 신용카드의 사용·관리
⑤ 신용관리 ⑥ 신용등급관리 ⑦ 신용의 의미·중요성 ⑧ 기타 ()

2. 신용과 관련된 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 초등학교 입학 전 ② 초등학교 재학 중 ③ 중학교 재학 중
④ 고등학교 재학 중 ⑤ 대학교 재학 중 ⑥ 대학교 졸업 후

3. 신용 교육은 누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가족(부모, 형제 등) ② 학교 ③ 공공기관(한국소비자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④ 소비자단체 ⑤ 기업 ⑥ 기타 ()

4. 위의 3번처럼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② 교육내용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③ 교육자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④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⑤ 교육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⑥ 가까운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⑦ 기타 ()

5. 대학생 대상 신용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6. 다음 신용 교육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란에 ✓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부채관리	①	②	③	④	⑤
2 합리적 소비	①	②	③	④	⑤
3 신용관리	①	②	③	④	⑤
4 신용등급관리	①	②	③	④	⑤
5 신용회복지원제도	①	②	③	④	⑤
6 신용의 의미·중요성	①	②	③	④	⑤
7 신용카드의 사용·관리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	①	②	③	④	⑤

